

[보도자료] '쿠팡 상생 리포트 2022' 발간 지난 2년간 총 9732억 원 지원

2022. 09. 20.



- 쿠팡, 소상공인 파트너와 상생 성과 담은 '쿠팡 상생 리포트 2022' 발간
- 쿠팡에서 거래하는 판매자 소상공인 판매자의 비중 76%, 10명 중 8명이 소상공인
- 쿠팡이츠, 전통시장 매출 평균 77% 상승 견인 및 자체 브랜드 협력 제조사 매출 3년간 500% 증가

2022. 9. 20. - 쿠팡은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과 함께한 상생 활동 성과를 담은 '쿠팡 상생 리포트 2022'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쿠팡 상생 리포트 2022'는 쿠팡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파트너와의 동반성장 성과를 데이터로 정리한 보고서다.

지난 2년간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은행 등과 상생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총 973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프로그램에는 광고 마케팅비 지원, 거래대금 조기지급, 대출 지원, 판매수수료 할인 등 중소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4분기 쿠팡에서 거래하는 판매자 중 소상공인 판매자의 비중은 76%로, 10명 중 8명이 소상공인인 셈이다.

쿠팡은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상생기획전을 열어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 사업에도 앞장섰다. 작년 지역 상생 기획전에 함께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 177.2%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쿠팡에 입점한 전체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률인 97%보다 높으며, 동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국 소상공인 매출 성장률과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쿠팡이츠가 희망의 손길을 뻗었다. 쿠팡이츠가 제공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52개 전통시장 300여 개의 가맹점들의 2021년 12월 매출은 연초 대비 평균 77% 상승했으며,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기록한 가맹점도 총 40여 곳에 달했다.

쿠팡 자체 브랜드는 중소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고객 접점의 기회를 제공했다. 쿠팡 자체 브랜드 전문 자회사 CPLB와 협력하는 중소기업 제조사들의 매출은 지난 3년간 500%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제조사들은 쿠팡 PB 상품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돼 쿠팡과 중소기업 간 성공적인 동반 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분 대표는 "이번 상생 리포트를 통해 쿠팡과 중소기업이 함께 코로나19 기간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파트너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상생 리포트 2022 보기](#)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